

梅月堂 金時習의 「感興詩 11수」 연구

강 창 규*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2) 중국 성리학의 맥락: 大道의 부
침과 異端의 발흥 |
| 2. 방랑기 김시습의 사상적 갈등과
모색의 과정 | 3) 조선 성리학의 전승: 大道의 회
복과 道學의 여정 |
| 3. 「感興詩 11수」의 작품 세계 | 4. 나가며 : 「感興詩 11수」의 의미
자의 관계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매월당 김시습이 1465년(세조 11, 31세)에 지은 「병으로 열흘 동안 누웠다가 가을이 깊어지고 나서야 일어났다. 현재를 느껴워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感興詩를 짓다. 11수」(이하 「感興詩 11수」로 약칭)의 분석을 통하여, 김시습이 가졌던 성리학 이해의 일단과 사상적 전환의 일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김시습의 삶과 사상은 단순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그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유자에서 불자로, 다시 유자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승려의 행색으로 방랑을 떠나는 과정만 보아도 그러하다. 사상적으로도 유·불·도를 오가고 성리학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본고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는 이런 김시습의 다층적 학문세계와 전환의 지점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한 한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김시습의 삶과 사상에 있는 전환의 지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四遊錄』 시기에 주목하고 그중에서도 방랑의 후반부 금오산 정주기에 지어진 『感興詩 11수』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感興詩 11수』는 김시습이 10여 년이 넘는 방랑 속에서 치열한 자기 모색의 과정을 거친 후, 깊은 사색 속에서 지은 작품이다. 김시습은 관서·관동·호남·금오를 방랑하면서 그저 분노와 울분 속에서 떠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과 서적을 만나면서 학문을 갈고닦았다. 그리고서 금오산에 안착한 후, 성리학 이해에 진전을 보이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라 판단된다.

『感興詩 11수』는 朱熹의 『齋居感興 20수』를 전범으로 해서 그 배경을 우리나라로 확대하고, 유교/성리학의 부침 과정을 읊은 시이다. 제1수는 序詩에 해당하며 우주의 흐름 및 天道와 君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읊었다. 제2수부터 제6수까지 다섯 수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제7수부터 제11수까지 다섯 수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대도의 부침과 현재 자신의 감회를 읊었다. 구조적으로 정밀한 대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사상적으로도 김시습이 성리학에 더욱 방점을 찍는 국면을 보여준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김시습의 성리학 공부는 훗날 성종 시기 서울에서 신진사류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스승 격으로 조선 최초의 성리학 담론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김시습, 감흥시, 금오산, 성리학, 사유록, 주희, 재거감흥

1. 들어가며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일생의 전체 흐름과 주요 전환의 지점을 간과한 채 하나의 키워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김시습 역시 ‘방외인’, ‘생육신’ 등 하나의 이미지에 의존하여 평가되곤 하였다. 하지만 김시습은 대단히 복잡한 인물이다. 유·불의 회통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에 빠져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김시습처럼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인물이라면, 그의 삶의 특정 국면에서 지어진 주요 작품을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59세를 일기로 생을 마친 김시습의 삶을 보노라면, 20대의 김시습과 30대의 김시습이 사뭇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젊은 시절 예민한 감수성의 시기에 가졌던 생각과 나름 인생의 연륜과 학문이 깊어지던 시기의 생각이 같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 전환의 지점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작품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四遊錄』 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통념상 김시습이 세조정권에 비분강개하여 방랑을 떠난 것에만 주목할 뿐, 그 방랑기에 치열하게 학문적으로 자신을 갈고닦았음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¹⁾ 더구나 방외인·생육신이라는 하나의 像 때문에 불교·도교 및 절의에 관한 연구는 꽤 많은 반면, 김시습의 성리학에 대한 연구는 최근 답보 상태에 있다.

물론, 기존 김시습의 문학사상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었다. 임형택과 조동일은 김시습의 사상을 기일원론이라고 하고 『금오신화』와 관련시켜 논의하였다.²⁾ 김명호는 이에 대해 이기이원론으로 이해한다는

1) 정출현은 김시습의 방랑기를 유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모색하는 시기로 주목한 바 있다. 정출현, 「유교문명으로서의 전환과 ‘시대의 스승’, 김종직과 김시습(I) - 세종-세조대 유교지식인의 자기정체성 모색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8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23-31쪽 참조.

2) 임형택, 「金時習의 思想體系와 金鰲新話- 現實主義의 世界觀을 中心으로」, 서울

반론을 제기했다.³⁾ 최귀묵은 기일원론에 바탕하여 실사명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통해 김시습의 사상이 유·불·도를 통해 자신만의 사상을 갖추었다고 하였다.⁴⁾ 그리고 심경호는 肉化라는 표현을 통해 김시습이 온몸으로 유·불·도의 사상을 체득하고 실천하였다고 하였다.⁵⁾ 이는 복잡하게 얽힌 김시습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연구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리학에 대한 선이해를 통해 김시습을 분석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전기 성리학 이해의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거나, 김시습의 사상관이 불철저했다는 비판을 하였다.⁶⁾ 물론 조선후기/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김시습의 성리학에 대한 심화 정도가 그리 대단할 것 없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자대전』이 조선에 들어오기 이전, 『근사록』·『성리군서』·『성리대전』 정도의 서적이 유입되고 이해되고 있던 과정이었음을 간과한 채, 과도한 평가 및 비판을 했던 것이 아닐까.

오히려 성리학이 유입되어 이해되어가던 초창기에 학자들이 나름 어떤 방식으로 성리학을 이해하고, 시대를 설명해나가고자 했는가를 읽어 낼 필요가 있다. 그런 흐름에서 볼 때, 김시습은 매우 두드러진 존재이

대 석사학위논문, 1971; 조동일, 「小説의 成立과 初期小説의 類型的 特徵」, 『韓國學論集』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455-510쪽 참조.

3) 김명호, 「金時習의 文學과 性理學思想」, 『韓國學報』 10, 일지사, 1984, 37-55쪽 참조.

4) 최귀묵, 『김시습의 사상과 글쓰기』, 소명출판, 2001. 이러한 본체론에 대한 종합적인 과정은 안동준에 의해 검토된 바 있다. 안동준, 「김시습 문학사상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남명학연구』 18,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4, 255-280쪽 참조.

5)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65쪽.

6) 조동일은 김시습의 「신귀설」이 논리 전개가 미진하다고 평가하면서 “말하지 않은 조상제사까지 끌어내서 논리 전개가 더욱 힘들어졌다.”라고 하거나 남효온의 「귀신론」은 “논리가 불철저한 면이 있다.”라고 하였다. 조동일, 「15세기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변모」,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173쪽. 이 이외에 김시습의 성리학을 분석한 연구로 김은수, 「梅月堂 詩 研究」, 전남대박사논문, 1995를 들 수 있는데, 김시습의 삶의 흐름과 작품 각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다. 시대적·사상적으로 당시 가장 선두에서 선진학문을 섭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 섭렵의 과정과 인생의 변곡점들이 교차하여 전환의 지점을 만드느바, 이에 본고는 방랑의 마지막 시기에 지어진 한 편의 시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병으로 열흘 동안 누웠다가 가을이 깊어지고 나서야 일어났다. 현재를 느껴워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감흥시를 짓다. 11수」⁷⁾는 김시습이 삶에 전환점을 느끼고 고심 끝에 지은 시이다. 방랑 속에서도 치열한 자기고민을 거치고 난 후, 나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은 작품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시의 세밀한 고찰을 통해 1차 방랑기 후반부에 김시습이 가지고 있던 사상의 면모를 제대로 고찰할 수 있길 기대한다.⁸⁾

2. 방랑기 김시습의 사상적 갈등과 모색의 과정

본격적으로 시를 살펴보기에 앞서, 방랑 초·중반 시기에 해당하는 「유관서록」·「유관동록」·「유호남록」을 중심으로 김시습의 사유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는지 살펴보겠다. 익히 알고 있듯 김시습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崔致雲에게서 「時習」이란 이름을 받고, 5세에 李季甸의 문하에서 『중용』과 『대학』을 배웠다. 成均館司藝 趙須가 이름에 맞춰 「悅卿」이란 字를 지어주었고, 政丞 許稠가 직접 방문하였으며, 知申事 朴以昌를 만나 세종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13세까지 金泮의 문하에서 유가서적을 배우고, 尹祥에게 『주역』 및 제자백가를 배웠다.⁹⁾ 어린 시절부터 유가의 학문을 착실하게 배웠음을 알 수 있다.

7) 金時習, 「病臥彌旬, 至秋深乃起, 感今思古, 作感興詩. 十一首」, 『梅月堂詩集』卷12.

8) 참고로 김시습의 방랑기는 단종복위운동 후 관서·관동·호남·금오를 방랑하는 1차 방랑기와 서울 정착 이후 다시 강릉·양양 등지로 떠나는 2차 방랑기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의 방랑기는 1차 방랑기를 말한다.

9) 金時習은 「上柳襄陽陳情書」, 『梅月堂文集』卷21에서 자신의 삶의 과정과 심정을

하지만 15세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와 생활하다가 3년 상이 끝나기도 전에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18세인 1452년(문종 2)에 모친상을 끝내고 曹溪山 松廣寺에 머물면서 峻上人에게 불법을 배웠다. 김시습은 준상인과의 만남에서 20수에 달하는 연작시를 짓는다. 그 서문에서 “도를 사모하면서도 초탈한 마음이 말하는 표면에 드러나고, 매일 禪에 들어가는 관문에 대해 물어보아도 대답이 낭랑하였다.”¹⁰⁾라고 하였다. 10대라는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 자신을 사랑해주었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방황하던 김시습을 불교의 세계가 위로해줬을 법하다.¹¹⁾

그 이후는 주지하듯, 과거 공부를 하다가 단종복위운동마저 실패로 돌아간 것을 목도하고, 세상에 異端이 발흥하는 것을 보며 방랑의 길을 떠난다.¹²⁾ 젊은 시절 유교와 불교 모두를 공부했던 김시습은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아가지 않았다. 비록 모습은 불자의 행색으로 다녔지만, 오히려 20대의 방랑 시절을 면밀히 살펴보면, 유·불 회통 또는 양자의 차별을 넘어 근원의 진리를 추구하려던 경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유관서록』을 보면, 1458년(세조 4) 명나라 英宗이 복위한 것을 축하하러 사신으로서 가던 김수온에게 “갈림길은 비록 다르지만 마음을 함

밝힌 바 있다. 金泮은 權近의 문인으로 경서에 통달해 성균관에 20여 년간 재직하였다. 尹祥은 鄭夢周의 문인으로 『실록』의 사평에 “학문이 정미하고, 理學을 잘하였는데, 더욱 周易에 정밀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문종실록』 즉위년(1450) 7월 8일(8).

- 10) 金時習, 『贈峻上人 二十首』, 『梅月堂詩集』卷3, “其慕道超脫之心, 著於語辭之表, 每日扣問禪關, 語琅琅然.”
- 11) 김시습이 훗날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東峯六歌』를 보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을 애절하게 읊고 있다. 『東峯六歌』, 『梅月堂詩集』卷14, “有孃有孃孟氏孃, 哀哀鞠育三遷坊.”
- 12) 김시습은 『上柳襄陽陳情書』에서 “세조 초 옛 친구들과 교목들이 모조리 귀신명부에 오르게 되었으며, 또 異教가 크게 일어나 사문이 쇠락하게 되니, 제 뜻은 황량해졌습니다.[光廟之初, 故舊喬木, 盡爲鬼簿, 而復異教大興, 斯文陵夷, 僕之志已荒涼矣.]”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異教의 발흥이란 세조 초년 활발하던 불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해야 하니, 마음만 함양하면 다른 것을 찾을 필요 없네”¹³⁾라고 하여, 유교와 불교가 갈림길로 갈라서 있지만 ‘養心’이라는 화두를 통해 그 근원을 돌이키고자 하였다.

이런 류의 유·불 회통 내지 근원을 탐구하겠다는 사상은 이 관서지역을 떠돌면서 계속 나타난다. 계유정난에 가담한 공으로 靖難功臣 3등에 책정된 李蒙哥를 만나서는 “聖賢의 精到한 흥취를 알고자 한다면, 太極이 아직 나뉘기 전에 참여하라.”¹⁴⁾라며 근원으로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宋處儉이란 인물을 만나서는 “유·불이 相從함은 본래부터 그러하니, 李翱도 일찍이 藥山禪師 앞에서 깨달았네.”¹⁵⁾라고 하여, 유교와 불교가 원래는 서로 따르며 이어져 있는 것이며, 한유의 제자인 이고가 약산선사 惟儼에게 깨달음을 얻은 고사를 가져와 유학자로서 불교의 진리도 깨달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런 사상적 기초와 동시에, 중요한 지점은 관서를 유람하며 『고문진보』와 『성리군서』, 『도덕경』, 『주심경』을 얻어 읽었다는 것이다. 모두 책을 얻고서 기뻐하며 시를 쓰고 있다. 『고문진보』를 얻고서는 옥과 같은 문장을 칭찬하고 있고,¹⁶⁾ 『성리군서』를 얻고서는 黃庭堅이 朱濂溪를 평가한 ‘光風霽月’과 朱熹가 程顥를 표현한 ‘玉色金聲’을 인용하며 그들이 仁을 건졌음을 칭찬하였고,¹⁷⁾ 『도덕경』을 얻고서는 仁義의 근원은 아니지만 생명은 연장할 수 있겠다고 하였고,¹⁸⁾ 『주심경』은 何道全이 주해한 『반야심경』으로, 이를 얻고서는 삼교를 닦아 나아감에 길은 다르지만

13) 金時習, 『和金文良韻 守溫, 時朝天』, 『梅月堂詩集』 卷9, “岐路雖殊只養心, 養心不必謾他尋.”

14) 金時習, 『又贈李居士 蒙哥』, 『梅月堂詩集』 卷9, “欲識聖賢精到趣, 須參太極未分先.”

15) 金時習, 『和宋少尹處儉韻』, 『梅月堂詩集』 卷9, “儒釋相從本固然, 李翱曾悟藥山前.”

16) 金時習, 『得古文眞寶』, 『梅月堂詩集』 卷9, “世間珠璧謾相爭, 用盡終無一个贏, 此寶若能藏空洞, 滿腔渾是玉琤瑋.”

17) 金時習, 『得性理群書』, 『梅月堂詩集』 卷9, “光風霽月胸襟爽, 玉色金聲道德純.”

18) 金時習, 『老翁授我道德經一部』, 『梅月堂詩集』 卷9, “雖非仁義源, 可以延吾生.”

마침내 뜻은 동일하다고 하였다.¹⁹⁾ 여러 서적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학문을 베풀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김시습이 불교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관동을 여행하면서는 海師에게 『원각경』 강경을 들었으며,²⁰⁾ 오대산에서 淳老, 如老, 田禪老를 만나 그들의 참선하는 모습을 읊고 불교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²¹⁾ 또한 김시습이 불교에 조예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경주 금오산에 정착한 초반, 효령대군의 권유로 서울에 두 차례 올라간 것이다. 김시습의 실력이 탁월했기에 효령대군이 추천으로 『묘법연화경』을 내불당에서 언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²⁾

이렇듯 김시습은 유가 공부로 시작했다가 10대 후반 모친의 죽음을 계기로 생사를 둘러싼 근원적인 회의 속에서 불교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 20대의 방랑의 시기에는 여러 학문을 섭렵하며 유·불 회통 또는 그 양자의 세계를 넘어서 근원을 탐구하고 하고자 하였다.²³⁾ 그러던 중 방랑기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金鰲山

19) 金時習, 『得註心經一部』, 『梅月堂詩集』 卷9, “三教進修異, 畢竟同一旨.” 심경호의 『김시습 평전』에서는 『註心經』이 진덕수의 『심경』에 주를 붙인 것인지, 『반야심경』인지 확실치 않다고 하였다.(165쪽) 그리고 시 본문에 無垢子라는 표현이 있는데, 심경호는 원나라 焦養直인지 확실치 않다고 하였고, 『국역 매월당집』에서는 無垢居士 張九成이라고 하였다. 필자가 볼 때, 『주심경』은 元末 明初의 何道侏이 유·불·도의 이치를 가지고서 『반야심경』에 주해한 책으로 판단된다. 실제 무구자 주해의 『반야심경』이 남아있는데, 유가와 도가의 논리까지 포용해 주해하였고, 다른 호로 松溪道人이 확인된다.(김호귀 역, 『반야심경주해』, 中道, 2018를 참조) 號로 무구자, 송계도인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하도전이다.

20) 金時習, 『謝海師講經, 以水晶數珠爲答』, 『梅月堂詩集』 卷10.

21) 金時習, 『山中有淳老, 年高知法, 對話數日』; 『山中有如老, 住山已久, 尋訪相話』; 『山中有田禪老, 言旌善亦有碧波山, 最好, 可以棲隱』, 『梅月堂詩集』 卷10.

22) 김시습이 20대의 나이에 이미 불교에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에 대해서는 김풍기, 『지식의 재구성: 김시습의 범화경 읽기』,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67-97쪽 참조.

23) 이는 여전히 고려의 유산이 남아있던 조선전기 사회였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정도전의 『불씨잡변』을 필두로 조선은 계속해서 척불정책을 폈지만, 불교는 유·불·도를 회통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반론을 제기하였다. 김시

定住期에서 김시습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다. 성리학을 깊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다.²⁴⁾ 그 대표적 작품이 『감흥시 11수』이다.²⁵⁾

3. 『感興詩 11수』의 작품 세계

1) 창작의 배경과 序詩: 天道와 君자의 관계

김시습의 『感興詩 11수』는 주자의 『齋居感興 20수』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주희의 『재거감흥 20수』는 陳子昂의 『感寓』에 영향을 받아 지었지만 仙佛의 요소에 불만을 품고, 성리학의 역사 의식과 도통 의식, 우주론과 심성론의 요체를 읊은 시이다. 주희는 성리학의 밝고 분명한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주나라-춘추시대-삼국시대-당나라에 이르는 역사적 부침과 혼란했던 시대상을 읊고, 이후 이단에 의해 가리워진 성인의 도에 대해 설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발분하여 영원히 처내

습 이전에 涵虛得通이 대표적이며, 그 이후에는 休靜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풍기, 『선가귀감, 조선불교의 탄생』, 그린비, 2013을 참조.

24) 그런 고민의 흔적과 성리학으로의 경사는 『금오신화』 중 『남염부주지』의 서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생은 일찍부터 부도나 무격, 귀신 등의 이야기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용』과 『주역』을 참고한 후부터 자기의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고서 『일리론』을 짓기 때문이다. 이는 김시습 본인의 자기고백으로 읽힌다. 김시습은 경주 금오산에 머물며 『감흥시 11수』를 쓸 무렵, 경주를 배경으로 사상사적 모색을 소설적으로 풀어낸 『남염부주지』를 창작하기도 했던 것이다. 본고에서 『금오신화』와의 연관성까지 다룰 수 없어 각주로만 관련 있는 부분들을 표시하겠다. 금오산 정주기에 지은 시들과 『금오신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25) 김풍기 역시 이 시를 주목하여 “문명의 전환과 관련하여 김시습의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여겨진다.”라고 한 바 있다. 김풍기, 『조선 초기 문명사의 전환과 김시습의 <유금오록(遊金鰲錄)>』, 『한민족문화연구』 62, 한민족문화학회 2018, 95쪽.

고, 一原의 비상한 공을 거두리라.”²⁶⁾라고 끝맺음으로써 이단을 배척하고 도통을 잇고자 하는 자기 다짐을 보여주었다. 이런 영향을 받아 조선 시대에도 일찍이 감흥시가 지어졌는데, 河崙, 權近, 表浴沫, 趙昱 등이 확인된다.²⁷⁾ 김시습 역시 이런 맥락 속에서 성리학적 우주관과 역사의식 및 이단 배척 사상을 담아 시를 썼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김시습의 성리학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성리군서』²⁸⁾와 『성리대전』²⁹⁾을 읽고 남긴 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리학을 꾸준히 보급하고자 했던 조선의 사상사와도 연관되어 있고, 김시습이 거기에 발맞추어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서 지역을 방랑하다가 지은 『得性理群書』를 보면, “四端을 잡고 놓음은 밖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만고의 乾坤이 모두 오늘에 있다네.”³⁰⁾라

- 26) 朱熹, 『齋居感興二十首』, 『晦菴集』 卷4, “發憤永刊落, 奇功收一原.” 『재거감흥20수』는 『성리군서』 권5와 『성리대전』 권70에도 실려 있다.
- 27) 정경주는 이들의 감흥시를 분석하면서 조선전기는 이단배척의 논리가 강하고, 조선후기는 심성수양의 논리가 강하다고 하였다. 정경주, 『朝鮮初期 感興詩의 文明과 眞樂』, 『동양한문학연구』 24, 동양한문학회, 2007.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들을 다루었기에, 삶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깊이 있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퇴계 이후에 『재거감흥시』를 필사했다는 기록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18세기에는 집주의 성격을 띤 임성주의 『朱文公先生齋居感興詩諸家註解集覽』과 이종수의 『朱子感興詩諸家集解』가 편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변동과, 『조선의 『재거감흥이십수』의 유통과 수용 양상 연구』, 『한국문화』 5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을 참조.
- 28) 『성리군서』는 『성리대전』을 편찬하는데 큰 영향을 준 서적으로 『性理群書句解』를 말한다. 주자의 제자 熊節이 편집하고 再傳弟子 熊剛大가 集解했다. 우리나라에는 1439년(세종 21)에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전부터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윤제, 『『성리군서구해』의 내용과 편찬경위』, 『규장각』 2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 13쪽 참조.
- 29) 『성리대전』은 1415년(明 成祖 13)에 편찬되었고, 4년 만에(세종 1)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세종 10년 『성리대전』 50부를 인쇄하여 2품 이상 문신과 代言·集賢殿博士에게 하사하고 춘추관·성균관에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성리대전』은 양도 많고 내용이 어려워 독파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읽어내고 있는 김시습이 돋보인다. 『성리대전』과 관련해서는 우정임,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박사논문, 2009; 정출현, 앞의 논문, 2018, 334쪽 참조.

고 하여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한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주의 이치와 연결되며 지금 여기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수양의 핵심인 ‘存誠’에 달려있음을 언급하였다. 또 “하늘이 七子を 내어 함께 仁을 건졌네.”³¹⁾라고 하여 『성리군서』에 실린 주돈이·정호·정이·장재·소옹·사마광·주희 등 송대 도학자 7명이 이단을 물리치고 유학을 다시 세운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금오산 정주기에 쓴 『得性理大全』에서는 “兩儀가 우릴 낳고 만류로 나누어졌으니, 性理를 궁구하면 몸을 수고로이 할 것 없네.”³²⁾라고 하여 兩儀, 性理와 같은 성리학의 개념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시습이 지은 『養性箴』을 보면, “하늘이 나를 낳고서, 命을 주셨네, 兩儀와 五行이 각각 그 바름을 얻었도다, 다시 나에게 理를 내려주시니, 이것을 일러 性이라 하네.”³³⁾라고 하며, 성리학의 요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김시습은 “정밀히 연구하면 이 이외의 궤이하고 허탄한 것들은, 沖虛와 묘하게 접하여 들을 것이 못된다네.”³⁴⁾라고 하여 성리학만 정밀히 연구한다면 불교나 도교와 같은 것들은 沖虛와 같이 허탄하고 텅빈 곳으로 들어가 들을 것이 못 되는 것이라 말하였다.

이렇듯 관서 지역에서 『성리군서』를 읽고 금오산 정주기에 『성리대전』을 접함으로써 성리학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리군서』와 『성리대전』 두 서적이 『감흥시 11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점은 『성리군서』 권5와 『성리대전』 권70에 주희의 『재거감흥 20수』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곧, 김시습은 두 서적을 통해 주희의 시를 접

30) 金時習, 『得性理群書』, 『梅月堂詩集』 卷9, “四端操舍非由外, 萬古乾坤儘在今”

31) 金時習, 위의 글, “天生七子濟同仁.”

32) 金時習, 『得性理大全』, 『梅月堂詩集』 卷12, “兩儀生吾萬類分, 推窮性理不勞筋”

33) 金時習, 『養性箴』, 『梅月堂文集』 卷21, “天之生我, 既授以命, 兩儀五行, 各遂其正, 復稟我理, 是之謂性.”

34) 金時習, 『得性理大全』, 『梅月堂詩集』 卷12, “精研茲外如奇誕, 妙接沖虛非所聞.”

하고 「감홍시 11수」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김시습이 이 시를 쓴 시기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시습은 금오산에 있으면서 1463년(세조 9) 가을과 1465년(세조 11) 3월에 효령대군의 요청으로 서울에 두 번 올라가 내불당에서 『묘법연화경』 언해하고, 원각사 낙성회에 참석하면서 도첩을 받았다. 그리고 효령대군의 만류와 세조의 출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³⁵⁾ 1465년(세조 11, 31세) 가을에 경주로 다시 돌아와 이 시를 썼다. 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김시습은 서울에서 경주로 돌아온 후 열흘 동안 많이 아팠다. 아마도 서울에서 경주까지 오가는 고된 길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물론, 심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고향인 서울에 있지 못하는 심정과 출사를 거부하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 등이 겹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과거와 현재를 고민하고 난 후, 11수에 이르는 시를 지었던 것이다.

이 「감홍시 11수」는 구조적으로도 정밀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제1수는 나머지 10수를 총괄하는 의미가 있으며 서론에 해당하는데, 우주 만물의 순행과 군자가 그것을 체득함을 말하였다. 제2수에서 제6수까지는 중국을 배경으로 大道가 異端에 의해 가리워짐을 말하였고, 제7수에서 제11수까지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삼한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단에 의해 유학과 성리학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함을 말하였다. 1·5·5의 정확한 대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 둘 모두 大道, 곧 성리학이 이단과의 사상적 투쟁을 거쳐 이어져 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5) 김시습은 금오로 돌아오는 길에 세조와 효령대군으로부터 출사를 권유받았다. 「上柳襄陽陳情書」에서 “異道로 세상에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光廟께서 傳旨하여 자주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시습이 효령대군의 만류 때문에 서울에 지체하고 있었다는 언급은 「乞還山呈孝寧大君」, 『梅月堂續集』卷2에 보이며, 세조의 권유를 고사하는 시는 「유금오록」에 실려 있다. 「半道復命召, 固辭陳情詩」, 『梅月堂詩集』卷12.

	배경	시기 및 내용
제1수	우주	
제2수~제6수 (다섯수)	중국	2수- 삼황오제의 상고시대, 3수- 춘추전국시대, 4수- 송나라 시대, 5수- 도교 비판, 6수- 불교 비판
제7수~제11수 (다섯수)	우리나라	7수- 삼국시대, 8수- 통일신라시대, 9수- 고려시대, 10수- 조선시대, 11수-古수 및 마무리

이제 감흥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 序詩에 해당하는 첫수는 이렇게 시작된다.³⁶⁾

天道似機輪	천도는 機輪과 같아
一元無暫息	一元으로 잠시도 쉬지 않네
四時迭推移	네 계절 번갈아 바뀌어 가고
星辰環歷歷	星辰이 돌아감도 분명하구나
乾健又坤順	乾은 굳세고 또 坤은 순하여
大化如轉軸	큰 변화가 수레 굴레 돌아가듯 하네
一息若暫停	한순간이라도 잠시 멈춘다면
萬彙不能毓	만물은 길러지지 못하리라
君子法天運	군자는 하늘의 운행을 본받아
至誠體於穆	至誠으로 깊은 덕을 체득한다.

김시습은 天道가 쉬지 않고 움직이며 본래 一元이라 보고있다. 그 일원에 의해 사계절이 생성 운행하며 우주의 세계도 돌아간다.³⁷⁾ 군자는

36) 시 전체 원문 및 번역은 맨 뒤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37) 참고로 김시습은 「태극설」에서 “태극은 음양이요, 음양은 태극이다.[太極, 陰陽也, 陰陽, 太極也.]”라고 하였다. 이는 태극을 理로 보고 있는 주희의 개념이 아닌, 그 이전 주돈이·장재의 氣중심의 철학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시습이 성리학을 이해한 방식, 수준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필자의 생각을 거칠게 말해보자면, 김시습에게서 퇴계 이후 나타나는 치밀하고 정밀한 형이상학적 담론을 기대할 순 없지만, 핵심의 요체는 김시습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시습의 시대는 이러한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면모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었다. 문종-단종-세조-예종으로 넘

이 우주의 운행은 본받아 至誠으로 그 덕을 체득하는 것이다. 여기서 至誠은 『중용』 22장에 “오직 천하에 지극히 誠한 분이라야 그 性を 다할 수 있다. 그 性を 다하면 사람의 性を 다할 수 있고, 사람의 性を 다하면 사물의 性を 다할 수 있고, 사물의 性を 다하면 天地의 化育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化育을 도우면 천지와 함께 나란히 설 수 있게 된다.”³⁸⁾에서 온 것이다. 시의 시작을 성리학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용』을 통하여 말하고 있으며, 인간 내면의 순전한 性を 드러내기 위해 至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³⁹⁾ 곧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유가성리학의 天人合一의 세계관을 볼 수 있다.

2) 중국 성리학의 맥락: 大道의 부침과 異端의 발흥

제2수에서 제6수까지는 중국을 배경으로 유가/성리학이 이단에 의해 부침을 겪었음을 말하고 있다. 제2수에서는 제1수에서 언급한 天道가 삼황오제라는 최고의 성인에 의해 이어져 그들이 皇極을 세웠음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 이후 성인들이 이어오며 無爲之治로 백성을 다스렸기에 四海 안이 태평했음을 말하였다. 성인들은 몸소 실천하며 誠과 敬을 다 하였기에[躬行盡誠敬], 백성들이 모두 다스림을 따랐던 것이다. 여기서도 성리학 심성수양의 핵심인 誠과 敬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춘추전국시대가 되면서 전쟁이 만연해져 이러한 시대는 끝

어가는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성리학이 제대로 발전·계승되지 못한 듯하며, 오히려 무너진 정도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은거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정신이 중요시되었다고 생각한다.

38) 『中庸章句』 22章,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39) 『남염부주지』를 보면, 박생의 의견에 동조하며 염라대왕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道라고 하고, 한번 열리고 한번 닫히는 것을 變이라고 하며, 낱고 또 낱음을 易이라고 하고, 망령됨이 없음을 誠이라고 한다.” 김시습 저, 이지하 역, 『금오신화』, 민음사, 2009, 95쪽.

이 나고 말았다. 그리고 제3수에서는 춘추전국시대에 공자와 맹자가 있어도 양주와 묵적, 소진과 장의를 막을 수 없음을 언급하며, 아득한 훗날 누가 황극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한탄하였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제4수에서는 드디어 조금의 빛이 보임을 언급한다.

宋朝數君子	송나라의 몇몇 군자들이
激揚不傳緒	전해지지 않던 단서를 激揚하였네
帝方注釋典	황제가 불경을 주석을 할 때
熹成大學序	주희가 『대학』 서문 완성하였네
所如多不合	간 곳마다 합치되지 않은 일 많아
矛盾無與侶	창과 방패 격으로 짝이 없었네

제4수에서는 송나라에 훌륭한 학자들이 등장하여 그동안 전해지지 못했던 유학의 단서를 격양하였다고 하였다. 춘추전국시대 이후 이단의 학설이 횡행했지만 드디어 송나라의 학자들에 의해 유학의 단서가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곧 성리학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다. 김시습은 주희가 『대학』 서문을 완성하였음에 주목한다. 주지하듯, 주희는 1200년(건원 6) 3월 6일 죽기 3일 전에도 『대학』 『성의』의 주해를 고친 후 절필하였을 정도로 『대학』에 정력을 쏟았다. 김시습은 이렇게 주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해했던 『대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道가 세상에 행해지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송 효종이 신유학을 僞學으로 금하고 대대적인 불경 주석 사업을 벌였기에, 간 곳마다 합치되지 않은 일 많았고 창과 방패 격으로 짝이 없었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道가 머물 곳 없이 떠돌다 시대가 멀어질수록 더욱 그 가르침이 희미해지고, 이단의 학설은 더욱 득세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에 5·6수에서는 도교와 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들어선다. 제5수는 다음과 같다.

神仙道似眞	신선의 도는 참인듯하여
迢迢遺世外	아득히 세상 밖을 따르네

不知世間外	알지 못하겠구나. 세상 밖에
更有至道最	다시 지극한 도가 있는지
似是竟不眞	옳은 것 같지만 끝내 참되지 못하니
稂莠爲粟害	가라지 풀이 조에게 해로운 것 같구나
儉生固非理	생명을 탐하는 것은 진실로 이치가 아니니
那堪言語大	어찌 말이 정대할 수 있으리오

도교는 세상을 초탈한 듯한 높은 경지가 있는 듯하지만, 김시습은 이 세상 밖에 다시 지극한 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그 참되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⁴⁰⁾ 그러면서 양생술을 크게 비판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방랑기 마지막이자 30대 초반의 김시습은 실제 현실세계와 동떨어져 보이는 도가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인 듯 하지만 참이 아니었고, 특히 억지로 생명을 늘리는 행위는 잘못임을 깨달았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제6수를 살펴보자.

佛法自西來	불법이 서쪽으로부터 전래되니
廣大無邊岸	넓고 커서 끝없는 언덕 같아라
雖得愚者迷	비록 愚者들의 미혹함은 얻었지만
多爲識者憚	많은 識者들의 꺼림이 되었네
操心似周孔	마음잡기를 주공·공자와 비슷하게 하였지만
外軌眞贗亂	법도 밖이라 참과 거짓 어지럽혔다

제6수에서는 불가의 문제점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불법이 크고 광대해서 우매한 사람들은 믿게 되지만 식자들은 꺼리는 바가 많다고 하였다.⁴¹⁾

40) 『남염부주지』에서 불교의 천당·지옥과 제례문화를 비판하면서 염라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찌 건곤의 바깥에 다시 건곤이 있으며, 천지의 바깥에 다시 천지가 있겠소?”

41) 『남염부주지』에서 박생이 공자와 석가는 어떤 사람인지 묻자 염라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정도로써 사도를 물리쳤으므로 주공과 공자의 말씀은 정직하였고, 사도로써 사도를 물리친 석가의 말씀은 황탄하였소. 정직하므로 군자가 따

불교의 마음공부가 주공·공자의 방식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법도 밖이라 참과 거짓을 뒤섞어 버렸다고 하였다. 앞서 도교가 현실계를 떠난 곳에 이치를 세웠다면, 불교는 너무 크고 아득하여 참과 거짓을 뒤섞어 버린 채 우매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제5수에서 ‘似是竟不眞’, 제6수에서 ‘操心似周孔’라고 하였듯, ‘似’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결국 김시습에게 도교와 불교는 似而非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김시습은 지난 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했던 도교와 불교에 대해 비판하면서 유가/성리학으로 돌아오려는 자세를 다잡고자 함을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도가 여러 이단에 의해 부침을 겪으며 내려왔고, 조선에도 그 대도가 이어졌음을 절감한 것이다. 따라서 제7수부터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그 도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읊기 시작한다.

3) 조선 성리학의 전승: 大道의 회복과 道學의 여정

제7수에서는 우리나라가 삼한시대부터 중국과 풍속이 달랐고, 설총과 최치원에서부터 유학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이들이 유학의 도를 가져왔지만, 方言으로 경전에 훈을 달아 해석했기에 仁義를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김시습은 불교 국가인 신라가 지나치게 불교를 신봉하여, 膏肓에 병이 생기듯 낫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자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진단하였다.

제8수에서는 그렇게 불교가 융성해짐에 따라 신라에 사찰이 많아져 아침저녁으로 시끄럽게 종과 북을 울려대며 재앙인 줄 알지 못한 채 來生の 복을 희망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⁴²⁾ 김시습은 다른 글에서도

르기 쉽고, 황탄하므로 소인이 믿기 쉬운 것이오”

42) 『남염부주지』에서 박생이 불교식 제례문화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가 울고 쥐가 짹짹대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주는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친척들을 끌어들이고 벼들을 불러 모으니 남녀가 뒤섞이고 대소변이 낭자하여 淨土를 더러운 뒷간으로 바꾸고 寂場을 소란스러운 시장판으로 바꿉니다.”

이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유·불·도의 이치에 대해 논설한 『扶世第五』에서 “禍福이 응보하고 昇沈이 윤회한다는 설은 혹 괴이한데 빠지고 혹 허탄한데 떨어져 통달한 사람도 매우 놀라는 것이니, 두고 논하지 말아야 한다.”⁴³⁾라고 하였다.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현실세계에 김시습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도교의 문제점으로 세상 밖에 지극한 도를 세웠음을 지적한 것처럼, 불교는 廣大無邊의 언덕처럼 너무 큰 세계를 이야기하기에 세상과 동떨어졌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의 상황을 읊은 제9수는 다음과 같다.

高麗統三韓	고려가 삼한을 통일하니
文物粗小康	문물이 대략 조금은 안정해졌다
雖有君子儒	비록 君子儒가 있다 하여도
多爲名所韁	대부분이 명예에 얽매었구나
安珣齊賢輩	安珣과 李齊賢 같은 이들은
頗慕宋周張	송나라 周子, 張子를 매우 사모했으나
只緣習尙侵	다만 습속에 오히려 침윤되어서
未能升其堂	그 당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所以至季世	그러므로 말세에 이르러서
不能扶闇王	몽매한 왕을 도울 수 없었구나

제9수에서는 고려가 참혹했던 후삼국을 통일하고서 체제를 정비하고 과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문물이 조금 안정되었다고 판단한다. 과거제도가 시행되었기에 君子儒가 배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영달을 위한 명예에 얽매어 있었다. 이는 程頤로 대표되는 도학자들이 관직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한 채 학문의 포부를 제시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⁴⁴⁾ 김시습 역시 정이의 傳을 지으며 “나이 오십 살이

43) 金時習, 『扶世第五』, 『梅月堂文集』卷16, “且如禍福報應, 昇沈輪迴之說, 或涉於怪, 或失之誕, 通人達士, 頗或驚焉, 置之莫論.”

44) 이에 대해서는 피터 K. 불, 김의용, 『중국 지식인들과 정체성』, 북스토리,

넘도록 벼슬길로 나아가기를 구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고고한 儒者요 성세의 逸民이다.”⁴⁵⁾라고 했을 정도로 속세의 벼슬이 아닌, 도도한 도학자로서의 자세를 칭송한 바 있다.

이러한 유자상을 통해서 보았을 때, 김시습에게 있어 안향과 이제현은 비판할만한 인물이다. 그들은 신유학을 들여왔고 주돈이와 장재를 사모하였지만, 김시습은 그들이 습속에 의해 주돈이와 장재의 경지까지 오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습속은 과거공부에 얽매어 명예만 뒤쫓는 세태와 불교에 찌든 세속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표현하면서 ‘堂에 오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김시습에게 있어 안향과 이제현은 室이 아닌, 堂조차 오르지 못한 인물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들어온 신유학으로는 고려말의 공민왕을 도와서 제대로 개혁을 이룰 수 없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10수에서는 조선의 대도에 대해 읊기 시작한다.

天生我太祖	하늘이 우리 태조를 내려주시어
御天乘六龍	하늘을 어거하여 육룡을 타셨도다
垂裕百億載	백억 년 동안 복을 내려주시니
禮樂何離離	예악이 어찌 그리 화합하였던지!
世宗又繼緒	세종께서 또 통서를 이어받아
遠追三五蹤	멀리 삼황오제의 자취를 따르셨다
庶幾大道復	거의 대도 회복했는데
吁嗟賓九重	아아! 궁궐에서 승하하셨네.

제10수에서는 조선이 성리학을 국시로 나라를 세웠기에 앞선 신라, 고려에 비해 기풍과 습속이 좋은 상황이라 보고있다. 따라서 김시습은 태조를 찬양하며 예악이 화합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통서를 세종이 이

2008, 781쪽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45) 金時習, 『程頤傳』, 『梅月堂文集』卷20, “年踰五十, 不求仕進, 眞儒者之高蹈, 聖世之逸民.”

어받았다고 하였다. 세종은 앞서 제2수에서 언급한 삼황오제의 자취를 따랐을 정도로 大道를 거의 회복한 왕이다. 실제 세종은 사신을 통해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을 수용한 이후, 이를 간행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한편, 경연에서 이 서적들을 깊이 공부하기도 했다. 세종을 두고 『실록』에는 “당시에 海東堯舜이라 불렀다.”⁴⁶⁾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도 크게 드러나지 못한 대도가 조선에서 온전히 실현될 뻔한 것이다. 하지만 궁궐에서 승하하셨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보듯, 세종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歲月忽代序	세월은 훌연히 바뀌어 가니
奔輪無停止	달리는 바퀴같이 멈추지 않네
今人惜古人	지금 사람 옛사람을 애석해 하나
古今若流水	지금과 옛날은 흐르는 물과 같아라
後人嘆今時	뒷사람이 지금 시대를 탄식함도
亦嘆今人似	역시 지금 사람이 옛날을 탄식함과 같은 것
今人與古人	지금 사람과 옛사람
不知何時已	어느 때 그칠지 알지 못해라
所以君子人	그러므로 군자들은
輕生重身死	삶을 가벼이 여기고 죽음을 중히 여겼네
吟罷忽仰視	읊고 나서 문득 하늘 우러러보니
斗杓橫麗迤	북두성 자루 비스듬히 걸려 있네

마지막 제11수에서는 세상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짐과 군자들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과거·현재·미래가 흐르는 물처럼 이어지고, 서로를 상대하며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김시습은 허무의 세계로 빠져들지 않는다. 불의의 삶 대신 의로운 죽음을 선택했던 앞선 君子의 태도를 떠올렸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레 사육신을 떠올리게 된다. 세조의 치세에서 그들을 직접

46) 『세종실록』32년(1450) 2월 17일(1).

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의로운 죽음을 중히 여긴 그들의 절개를 자연스럽고 아련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인생이자 도의 흐름이기에, 삶보다는 죽음을 선택했던 그들의 행적을 계승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은근하면서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이는 세종대 회복된 대도가 위기에 빠져있기에 하는 탄식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부터 조선에까지 이어져 오던 도학의 여정을 읊고서, 조선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밝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통렬히 자각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서 김시습은 홀연히 하늘에 걸려 있는 북두칠성을 본다. 끝없는 하늘의 운행 속에서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느꼈으리라. 그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 공부했던 유학의 길이와 새로운 도학의 길이였을 것이다.

4. 나가며 : 「感興詩 11수」의 의미

지금까지 경주 금오산에 머물면서 지은 「感興詩」 11수를 통해 김시습이 가졌던 성리학 이해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이 시의 의의는 김시습이 방랑기에 결코 허무하게 미친 척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학문을 깊이 닦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또 그의 삶에 적지 않은 전환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다. 『사유록』에 보이듯, 김시습은 불교와 도교에 침잠하

47) 한때 『매월당집』 속집에 실린 세조에 대한 찬양시들을 가지고 김시습의 절의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김시습의 절의관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 논의들이 나왔으나, (임형태, 『『매월당시사유록』에 관한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26, 한국한문학회, 2000; 김풍기, 『김시습의 諺解 사업 참여와 절의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4.) 김시습의 작품 중 직접적으로 사육신과 관련한 글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감흥시 11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는 작품이 되리라 생각한다.

며 불자의 행색으로 세상을 떠돌며 참선을 하기도 하고, 양생술을 궁정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긴 방랑의 끝에 금오산에 정착하면서 지은 이 시에서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그 이후, 신진사류와의 성리담론을 개진한다는 것과 이어진다. 김시습은 1469년(성종 2), 다시 서울로 올라가 수락산 밑에 거처를 마련하고 급기야 성종 1479년(성종 12) 47세 때 환속하고 결혼을 하며 제사를 다시 받들게 된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새로운 젊은 인물들인 남효온·홍유손·김굉필·안응세·정여창·이심원 등과 교류하며, 이들과 조선시대 최초의 성리학 담론을 시작하였다.⁴⁸⁾

이런 성리학으로의 轉回 뿐만 아니라 『감홍시 11수』에 담긴 의미는 적지 않다. 이 시는 김시습 자신의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중국이 이단과의 사상사적 투쟁 속에서 시대가 바뀌어온 것처럼, 자신의 삶도 이런 치열한 자기 모색 속에 있음을 읊은 것이다. 공맹의 도가 이단과 종횡가들의 언설에 묻혀 사라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송나라 성리학자들에 의해 다시 유학의 도가 세워졌지만, 또 도교와 불교라는 이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지고 어지럽혀진 현실을 한탄하였다. 이는 김시습 자신 역시 그동안 이단에 빠지기도 했던 것에 대한 자기비판이자 성리학 공부를 향한 자기다짐으로 읽히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작품의 창작시기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1465년 3월 원각사 낙성회에 참여하여 도첩을 받았고, 내려오는 길에 세조의 출사 요구를 사양하고서 경주로 돌아와 이 시를 지은 것이다. 도첩을 받고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이 나아갈 길을 명확

48) 이에 대해서 남효온의 『추강냉화』와 『사우명행록』에 여러 일화가 전한다. 그리고 남효온은 『귀신론』을 지으며 김시습의 『귀신설』을 토대로 결론을 짓고 있다. 김시습이 20대의 신진사류와 어울렸던 것은 신진사류가 성종 13년에 도학으로 전회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정출현, 『성종 14년(1483), 신진사류, 그리고 道學으로의 轉回-추강 남효온과 그 師友의 동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2018을 참조.

히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유교문명으로 전환된 시대를 인정하고, 자신 역시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을 다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자신의 사상적 분투를 보여주었다. 이런 사상적 면모는 훗날 성종 시기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에서 다루는 내용이 후반부로 갈수록 비판적 어조로 흐르는 것은, 당대의 정치사상사가 가야 하는 바른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주의 순환원리, 군자가 至誠으로 하늘의 운행원리를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중국의 사회·정치·사상사를 언급하고, 중국엔 우리나라의 사회·정치·사상사를 언급한 것도 다 의도를 가진 기술로 보인다.⁴⁹⁾ 이른바 문명의 전환기에 위치하면서 조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과거의 여정을 자세히 살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천운과 천도의 순환을 논하고, 도덕의 표준을 세우며, 우리나라 역사와 사상사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언급한 것은, 올바른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당시 시대에 대한 비판이자, 조선 초 개국 당시 사대부 문인들이 내걸었던 문명국가 건설의 희망이 세종의 승하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당시의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이다. 따라서 세종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삶보다 죽음을 더 중요시했던 군자들의 삶을 칭송하는 것으로 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감흥시 11수」가 워낙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한 편만을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김시습의 작품 중에서 성리학 관련 저술이 상당하기에 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⁵⁰⁾ 김시습의 성리학 담론을 퇴계 이후 나

49) 시의 의미에 대한 제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50) 금오산 정주기 이후에 지어진 것이라 판단되는 권20의 「귀신설」, 「생사설」, 「태극설」과 1480년(성종 11)에 지어진 「계인설」 등은 김시습 나름 성리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고 있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방랑의 길에서 쓴 「명주일록」에서는 「실리」, 「일기」, 「지성」, 「주경」, 「존심」, 「양성」, 「궁리」, 「정심」, 「성의」, 「수기」, 「치인」 등과 같은 성리학적 저술을 남기고 있다.

타나는 형이상학적 성리학 담론과 곧바로 비교할 순 없겠지만, 그 시론적 담론으로서 의의가 크다. 또한 大道, 곧 성리학이 무너져버린 세상을 목도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성리학적 저술로써 그 새길을 열어가고자 했던 김시습의 분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유념할 점은, 김시습이 30대 초반 성리학으로 경사되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의 후반부 삶이 성리학 일변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40대에 지어진 것이라 파악되는 『조동오위요해』에서는 “周子の『太極圖』와 朱子の『太極圖解』에 의거하여 유래를 보이고 아울러 피차가 同轍임을 드러내 보인다.”⁵¹⁾라고 하며, 불교와 성리학의 회통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일단’ 혹은 ‘국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김시습의 삶이 단순한 한 선으로 이해될 수 없고 다층적인 여러 선으로 영키며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김시습이 치열한 자기고민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후 수락산 정주기 및 다시 방랑을 떠나는 시기에 나타나는 주요 국면에 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51) 최귀목, 『김시습 『조동오위요해』의 역주 연구』, 소명출판, 2006, 59쪽, “今據周子太極圖及朱子解, 以示來由, 兼標彼此同轍.”

참고문헌

- 『국역 매월당전집』, 강원도, 2000.
- 김시습 저, 이지하 역, 『금오신화』, 민음사, 2009.
-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 조동일,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 최귀묵, 『김시습의 사상과 글쓰기』, 소명출판, 2001.
- _____, 『김시습 『조동오위요해』의 역주 연구』, 소명출판, 2006.
- 김호귀 역, 『반야심경주해』, 中道, 2018.
- 피터 K.볼 저, 심의용 역, 『중국 지식인들과 정체성』, 북스토리, 2008.
- 김명호, 「金時習의 文學과 性理學思想」, 『韓國學報』 10, 일지사, 1984, 37-55쪽.
- 김윤제, 「『성리군서구해』의 내용과 편찬경위」, 『규장각』 2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 1-29쪽.
- 김은수, 「梅月堂 詩 研究」, 전남대박사논문, 1995.
- 김풍기, 「김시습의 諺解 사업 참여와 절의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4, 5-22쪽.
- _____, 「지식의 재구성과 김시습의 범화경 읽기」,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67-97쪽.
- _____, 「조선 초기 문명사의 전환과 김시습의 <유금오록(遊金鰲錄)>」, 『한민족문화연구』 62, 한민족문화학회 2018, 75-103쪽.
- 변동파, 「조선의 『재거감홍이십수』의 유통과 수용 양상 연구」, 『한국문화』 5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 155-181쪽.
- 안동준, 「김시습 문학사상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남명학연구』 18,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4, 255-280쪽.

- 우정임,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박사논문, 2009.
- 임형택, 『金時習의 思想體系와 金鰲新話- 現實主義의 世界觀을 中心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1.
- _____, 『『매월당시사유록』에 관한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26, 한국한문학회, 2000, 59-85쪽.
- 정경주, 『朝鮮初期 感興詩의 文明과 眞樂』, 『동양한문학회연구』 24, 동양한문학회, 2007, 111-131쪽.
- 정출현, 『성종 14년(1483), 신진사류, 그리고 道學으로의 轉回-추강 남효온과 그 師友의 동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2018, 305-352쪽.
- _____, 『유교문명으로의 전환과 ‘시대의 스승’, 김종직과 김시습(I) - 세종-세조대 유교지식인의 자기정체성 모색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8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7-46쪽.
- 조동일, 『小說의 成立과 初期小說의 類型的 特徵』, 『韓國學論集』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455-510쪽.

「별첨 자료」 시 전체 원문 및 번역

「병으로 열흘 동안 누웠다가 가을이 깊어지고 나서야 일어났다. 현재를 느껴워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감흥시를 짓다. 11수」⁵²⁾

- | | | |
|-----|--|---|
| (1) | 天道似機輪
一元無暫息
四時迭推移
星辰環歷歷
乾健又坤順
大化如轉軸
一息若暫停
萬彙不能毓
君子法天運
至誠體於穆 | 천도는 機輪과 같아
一元으로 잠시도 쉬지 않네
네 계절 번갈아 바뀌어 가고
星辰이 돌아감도 분명하구나
乾은 굳세고 또 坤은 순하여
큰 변화가 수레 굴레 돌아가듯 하네
한순간이라도 잠시 멈춘다면
만물은 길러지지 못하리라
군자는 하늘의 운행을 본받아
至誠으로 깊은 덕을 체득한다. |
| (2) | 三皇與五帝
繼天立皇極
聖聖自相承
無爲萬姓服
豈將四海內
煦嫗陶甄入 | 삼황과 오제는
하늘을 이어 皇極을 세웠네
성인과 성인이 서로 이어서
無爲로 다스리니 만백성이 복종하였네
아마도 四海 안에
화육과 교화가 들어찼으리라 ⁵³⁾ |

52) 金時習, 「病臥彌旬, 至秋深乃起, 感今思古, 作感興詩. 十一首」, 『遊金鰲錄』, 『梅月堂詩集』 卷12. 번역은 『국역 매월당전집』을 참고하되, 수정·보완하였다. 『국역 매월당전집』, 강원도, 2000, 563-567쪽.

53) 원문의 煦嫗는 『禮記』, 『樂記』에 “천지의 기운이 화합하고 음양이 잘 조화되어 만물을 따뜻하게 감싸서 길러 준다. 그런 뒤에 초목이 무성해진다.[天地訢合, 陰陽相得, 煦嫗覆育萬物, 然後艸木茂.]”라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 陶甄은 陶工이 轆轤를 돌려서 각종 질그릇을 잘 만들어 내는 것처럼, 聖君이 선정을 펼쳐 천하를 잘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 | | |
|--|--|
| 躬行盡誠敬
風草可偃戢
嗟嗟至後世
征戰事驅脅 | 몸소 실천하며 誠과 敬을 다하니
바람 앞의 풀처럼 휩쓸려 숙였네
아! 후세에 이르러서는
전쟁으로 몰아쳐 협박함을 일삼게 되었구나. |
| (3) 周衰大道泯
異言自楊墨
復有蘇張謀
功利廓區域
雖有孔孟說
越人愛巾幘
悠悠千載下
誰能建其極 | 주나라가 쇠하자 대도가 사라지니
異言이 양주와 묵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소진과 장의의 모략이 나와
功利的 설이 널리 영역을 넓혀 나갔다
비록 공자 맹자 말씀이 있더라도
월나라 사람들이 두건 사랑하는 격이구나 ⁵⁴⁾
아득히 천년 뒤에
누가 그 황극을 세울 수 있으리. |
| (4) 宋朝數君子
激揚不傳緒
帝方注釋典
熹成大學序
所如多不合
矛楯無與侶
嗚呼道不行
瞻烏止誰處 | 송나라의 몇몇 군자들이
전해지지 않던 단서를 激揚하였네 ⁵⁵⁾
황제가 불경을 주석을 할 때
주희가 『대학』 서문 완성하였네.
간 곳마다 합치되지 않은 일 많아
창과 방패 격으로 짝이 없었네
아! 도가 세상에 못 행해지니
까마귀 바라보건대 어느 곳에 머물고? ⁵⁶⁾ |

54) 이 대목은 『莊子』 「逍遙遊」에 “송나라 사람이 장보관을 쓰고 월나라에 갔는데, 월나라 사람은 단발머리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쓸 곳이 없었다.[宋人資章甫, 適諸越, 越人短髮文身, 無所用之.]”라는 고사에 온 것이다. 이는 공자와 맹자가 춘추전국시대에 제후들에게 제대로 등용되지 못했던 사실을 비유한다.

55) 원문의 激揚은 ‘激濁揚清’의 준말이다. 濁한 사람을 몰아내고 淸한 사람을 올려 세운다는 뜻으로, 시비 현부를 가려 논핵하는 것을 말한다.

56) 원문의 瞻烏는 『詩經』 「小雅 正月」에, “서러워라 이 나라 망하면, 우리 어디로 가서 먹고 살까. 까마귀 날아 앉는 걸 보아라, 뉘 지붕에 가서 앉을런고[哀我人

逾遠復逾澆 멀어질수록 다시 더욱 얽어지나니
異說莫可禦 이단의 학설을 막을 수가 없구나.

- (5) 神仙道似眞 신선의 도는 참인듯하여
迢迢遺世外 아득히 세상 밖을 따르네
不知世間外 알지 못하겠구나. 세상 밖에
更有至道最 다시 지극한 도가 있는지
似是竟不眞 옳은 것 같지만 끝내 참되지 못하니
稂莠爲粟害 가라지 풀이 조에게 해로운 것 같구나
偷生固非理 생명을 탐하는 것은 진실로 이치가 아니니
那堪言語大 어찌 말이 정대할 수 있으리오
所以諸君子 그러므로 여러 군자가
關之欲淘汰 물리쳐 도태시키려 했대오.

- (6) 佛法自西來 불법이 서쪽으로부터 전래되니
廣大無邊岸 넓고 커서 끝없는 언덕 같아라
雖得愚者迷 비록 愚者들의 미혹함은 얻었지만
多爲識者憚 많은 識者들의 꺼림이 되었네
操心似周孔 마음잡기를 주공·공자와 비슷하게 하였지만
外軌眞贗亂 법도 밖이라 참과 거짓 어지럽혔다
細研王通言 자세히 王通⁵⁷⁾의 말을 연구해보니

斯, 于何從祿, 瞻烏爰止, 于誰之屋.]”라고 한데서 나온 말인데, 이 시는 어떤 大夫가 周 幽王의 虐政을 풍자하여 노래한 것이다. 僞學人으로 물린 주자학자의 처지를 빗댄 말로 보인다.

- 57) 王通 : 字는 仲淹으로, 20세에 隋文帝에게 『太平十二策』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황하와 분수[河汾] 사이로 돌아와 1천여 명의 제자를 가르쳤다. 續經과 『中說』을 지었는데, 자신의 글을 성인의 글에 견주었던 책들이다. 속경은 그가 저술한 『禮論』·『樂論』·『續書』·『續詩』·『元經』·『贊易』 등 이른바 王氏六經을 말하고, 『중설』은 그가 『논어』를 본떠서 만든 책이다. 주희는 『王氏續經說』을 지어 왕통이 함부로 성인의 글을 본떠 쓴 것을 비판하였다. 다음 행의 ‘九部’

九部語非謾 只緣見者悞 或入或有畔 何如古聖謨 整整無漫瀚	九部の 말 속이는 건 아니었지만 단지 보는 자의 즐거움 때문에 어떤 이는 들어가고 어떤 이는 경계에 있었네 어찌 옛 성인의 법도가 가지런하여 방만함이 없는 것과 같겠는가.
---	---

(7) 我國自三韓 俗與中國異 薛聰致遠輩 文章從此始 方言甚俚俗 不可語仁義 紛紛新羅末 競導西竺利 利語一入胸 如石水中墜 深墜作膏肓 飲醇不知醉	우리나라는 삼한시대로부터 풍속이 중국과 달랐다 薛聰과 崔致遠의 무리들 문장이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네 그러나 방언은 대단히 천하고 속되어서 인의를 말할 수 없었다 어지러웠던 신라 말기에 불교의 이로움을 다투어 따르니 利語가 가슴 속에 한번 들어가자 돌이 물속으로 떨어짐과 같은지라 깊이 떨어져 고칠 수 없는 병이 되니 술을 마시면서도 취하는 줄 몰랐구나.
--	---

(8) 縱縱塔利稠 峨峨佛廟巨 ⁵⁸⁾ 朝暮鍾鼓喧 擾擾如熬煮 知利不知禍 競希來生福 哀哉高鬱州	총총하게 탑과 절은 많기도 하고 높다랗게 불전은 크기도 하다 아침저녁으로 종과 북을 울려대니 시끄럽게 볍고 조리하는 것 같구나 이익만 알고 재앙을 알지 못하고 다투며 來生의 복을 희망하는구나 슬프다! 高鬱府로
--	--

는 왕통이 九經에 대해 풀이한 말로 추정된다.

58) 巨 : 고전종합DB에는 臣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이미지 및 『매월당전집』을 확인하여 고쳤다.

- 不覺豺虎入 승냥이와 범 들어오는 줄 깨닫지 못했구나.⁵⁹⁾
- (9) 高麗統三韓 고려가 삼한을 통일하니
 文物粗小康 문물이 대략 조금은 안정해졌다
 雖有君子儒 비록 君子儒가 있다 하여도
 多爲名所韁 대부분이 명예에 얽매었구나
 安珣齊賢輩 安珣과 李齊賢 같은 이들은
 頗慕宋周張 송나라 周子, 張子를 매우 사모했으나
 只緣習尙侵 다만 습속에 오히려 침윤되어서
 未能升其堂 그 당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所以至季世 그러므로 말세에 이르러서
 不能扶闇王 몽매한 왕을 도울 수 없었구나.
- (10) 天生我太祖 하늘이 우리 태조를 내려주시어
 御天乘六龍 하늘을 어거하여 육룡을 타셨도다
 垂裕百億載 백억 년 동안 복을 내려주시니
 禮樂何離離 예악이 어찌 그리 화합하였던지!
 世宗又繼緒 세종께서 또 통서를 이어받아
 遠追三五蹤 멀리 삼황오제의 자취를 따르셨다
 庶幾大道復 거의 대도 회복했는데
 吁嗟賓九重 아아! 궁궐에서 승하하셨네.
- (11) 歲月忽代序 세월은 홀연히 바뀌어 가니
 奔輪無停止 달리는 바퀴같이 멈추지 않네

59) 高鬱은 경북 영천의 옛 이름이다. 승냥이와 범은 견훤의 군사를 말하는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경애왕 4년』에 다음의 기록이 있다. “가을 9월에 견훤이 高鬱府에서 우리 군사를 공격하였으므로 왕이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 견훤은 구원병이 미처 이르기 전인 겨울 11월에 갑자기 서울에 쳐들어갔다.”

今人惜古人
古今若流水
後人嘆今時
亦嘆今人似
今人與古人
不知何時已
所以君子人
輕生重身死
吟罷忽仰視
斗杓橫邈迤

지금 사람 옛사람을 애석해 하나
지금과 옛날은 흐르는 물과 같아라
뒷사람이 지금 시대를 탄식함도
역시 지금 사람이 옛날을 탄식함과 같은 것
지금 사람과 옛사람
어느 때 그칠지 알지 못해라
그러므로 군자들은
삶을 가벼이 여기고 죽음을 중히 여겼네
옴고 나서 문득 하늘 우러러보니
북두성 자루 비스듬히 걸려 있네.

<Abstract>

A study on 「GamHeungSi 11」 by Maeuldang Kim Si-seup

Kang, Chang-Kyu*

This study intends to grasp the part of Kim Si-seup(金時習)'s understanding of Neo-Confucianism and ideological transform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Gam-Heng poetry(感興詩) 11」 written by Si-seop Kim in 1465 (the 11th and 31st year of King Sejo's reign). Kim Si-seup's life and thoughts do not unfold simp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attention and focus on certain aspects of various situations. I want to pay attention to 'Sa-yu-rok(『四遊錄』) period' and focus on a piece written while living in Mt. Geumo in the latter part of the wandering life.

「I had been sick for ten days and got better in the autumn. feel the present and think of the past. 11」 is that Kim's work was written in deep contemplation after a decade of intense self-seeking in the midst of wandering. He did not just indulge in pessimism, but he fiercely honed his studies by meeting various characters and books. After settling on Mt. Geumo, he wrote the poem in a vow to go deeper into the world of Neo-Confucianism.

Kim regrets how much Confucianism suffered by heresy against the backdrop of China and Korea. The first poem talked about the flow of space and the noble man. From the second to the sixth poem,

* Pusan National University.

he spoke that Neo-Confucianism was difficult by heresy. From the seventh to the eleventh, he spoke of the ups and downs of the Neo-Confucianism. It has a structural precision of cod, and shows Kim putting more importance on Neo-Confucianism ideologically. Kim's world of Neo-Confucian studies shines when he meets up with Neo-Confucian Scholars(新進士類) in Seoul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They had the first discourse on Confucianism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possible because Kim studied Neo-Confucianism a little ahead of time. This is the reason why this article focused on Kim's Neo-Confucian and analyzed its representative work.

Key Words: Kim Si-seup, Gam heung poetry, Mt. Geumo,
Neo-Confucianism, Sa-yu-rok, Chu Hsi,
JaeGeoGamHeung

■ 논문접수 : 2022년 04월 08일

■ 심사완료 : 2022년 04월 26일

■ 게재확정 : 2022년 04월 27일